

[붙임] 에세이 작성 서식

제 목	'YouTube' 속 MZ 세대		
소속 대학	한림대학교	소속 학과	의예과
학 번	2021	이 름	심**
이메일		연락처	

'Flex', '무야호', '레게노'와 같은 새로운 용어들이 인터넷이나 SNS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MZ' 세대가 이용하는 용어들이다. MZ 세대는 1980년대 초에서 1990년대 중반에 출생한 밀레니엄 세대와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 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MZ 세대는 최초의 글로벌 세대이자 인터넷 시대에 성장한 첫 세대이다. 그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며 남과 다른 이색적 경험을 추구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하고, 가격보다는 취향을 중시하는 소비문화가 일반적이고 명품 소비에 익숙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MZ 세대의 이러한 문화를 비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다. 직장 내에서 MZ 세대와 기성세대가 공존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대 갈등도 커지고 있고, 가족 내에서도 부모들과 자식들 간의 갈등이 존재하기도 한다. 하지만 오히려 MZ 세대의 특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 그 특징을 이용해 마케팅 하려는 회사들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MZ 세대의 문화 또한 한 세대의 특징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MZ 세대가 버스, 집, 회사 등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YouTube'라는 플랫폼을 살펴보고자 한다.

MZ 세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다. 그들은 모바일 기기를 자주 사용하고 그렇기에 방송 매체와 가까이 있다. 특히 'YouTube'라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은 텔레비전과 달리 일반인들도 자신의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댓글과 구독 기능을 통해 시청자들도 콘텐츠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기에 MZ 세대가 자주 사용한다. 그렇기에 YouTube 속 인기 콘텐츠를 살펴보면 MZ 세대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킬링 벌스'는 Dingo Freestyle에서 제작하는 영상 시리즈로, 호스트 아티스트가 선정한 노래들을 모아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콘텐츠이다. 일반적으로 랩 노래를 부르는 래퍼들이 아티스트로 등장하여 자신의 '벌스'를 보여준다. 이 영상 시리즈를 시청하다 보면 비트뿐만 아니라, 가사에 집중하게 되기도 한다. 아티스트들의 가사 내용을 보다 보면, 힙합 가사 특유의 솔직함과 거침없는 표현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힙합에는 밑바닥에서부터 자수성가하며 발전해

성공했다는 서사가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서사 속에서 빠지지 않는 것은 'flex' 하는 모습이다. 'Flex'라는 단어는 1990년 미국 힙합 문화에서 사용되던 용어로, '부나 귀중품을 과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 단어가 한국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일반적으로 힙합 래퍼들이 노래 가사에서 자신이 성공해서 번 돈으로 'flex'라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기성세대들은 자신이 가진 부를 자랑하는 모습을 따가운 시선으로 보지만, MZ 세대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성공과 부를 노력의 결과라고 인정하기에 그에 대한 자랑도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다. MZ 세대는 취업난 속에서 취업을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자격증을 따고, 자소서를 첨삭 받는 등의 과정을 거쳐 스펙을 쌓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면접이나 서류 제출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 적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의 모습 속에서 힙합은 스스로 성공을 일궈내고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모습에서 MZ 세대에게 쾌감을 주고, 일종의 출구 역할을 해주고 있다. '킬링 벌스'의 영상 조회수가 기본적으로 100만을 넘는 경우가 많고, 많게는 3,000만 조회수의 영상도 있는 것을 통해, 힙합의 'flex'하는 모습과 솔직한 모습이 MZ 세대에게 와닿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이언트 팽 TV'는 '팽수'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교육 방송 EBS의 YouTube 채널이다. 분명 첫 등장과 겉모습은 어린이들을 위한 캐릭터인데, MZ 세대에게 큰 관심을 받으며 채널이 성장했다. 팽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꿈으로 하는 팽권이라는 컨셉으로, 특유의 웃음 코드와 직설적이고 꾸밈없는 모습들이 MZ 세대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치장과 격식이 주는 피로감과 그에 대한 실증에 대한 반발을 팽수가 나타내기에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자이언트 팽 TV'의 여러 콘텐츠 중 특히 EBS의 김명중 사장을 팽수가 격식 없이 대하고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모습이 나오는 영상들이 인기가 많다. 수직 사회의 모습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팽수는 웃음과 함께 소통의 구조를 수평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사회에서는 상급자가 요구하는 대로 해야 하고, 회의 시간에는 제대로 된 발언권조차 없는 것에 대해 MZ 세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재치 있는 입담으로 수직 사회의 경계를 허무는 모습은 이런 MZ 세대의 관심을 끌고 있다. 팽수는 자신의 정체를 묻는 말에 대해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팽수입니다"라고 말한다. SNS로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이색 경험을 추구하는 MZ 세대의 모습이다. 사회생활에서는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확실성에 묻어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같은 걸로 주세요'라는 말을 하는 것이 미덕이고, '저는 이걸로 할게요', '이건 빼주세요'와 같은 대답은 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팽수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듯이 MZ 세대는 자신이 있는 그대로 존중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MZ 세대가 지향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 MZ 세대가 느끼는 팽수의 가장 큰 매력이다.

'YouTube Shorts'는 구글이 'TikTok'과 경쟁을 위해 내놓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다. YouTube의 하위 서비스로, 최대 1분의 숏폼 (Short-form)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다. 숏폼 형태의 영상은 짧은 시간 내에 시청자들에게 임팩트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핵심 내용만 담겨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빠른 정보 공유와 소비 속도에 익숙한 MZ 세대는 매우 빠른 속도로 정보를 소비할 수 있다. 숏폼 영상 매체를 기반으로 챌린지 열풍이 불기도 했다. 지난해 가수 지코의 '아무노래 챌린지'가 유행하면서 많은 사람이 이 챌린지에 도전하는 숏폼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다. 이러한 챌린지 열풍은 최신 유행에 민감한 MZ 세대의 특징을 기반으로 한다. YouTube Shorts는 쉬운 제작 방식을 가지고 있어 쉽게 참여가 가능하며 비전문가들에게도 접근성이 좋다. 전에는 SNS에 사진이나 글을 업로드하는 것이 MZ 세대의 자기표현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짧은 영상으로 자신의 일상과 취미를 공유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

YouTube는 TV나 라디오와 다르게, 시청자들의 참여도가 높고, 비전문가인 개인이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하다. 그리고 YouTube에 존재하는 무궁무진한 콘텐츠들이 MZ 세대의 흥미를 이끈다. 인기 콘텐츠를 살펴봄으로써 MZ 세대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래퍼들의 라이브 영상을 담은 '킬링 벌스'를 통해서는 'flex'라는 MZ 세대의 소비문화를 파악할 수 있고, '자이언트 펽 TV'에 등장하는 펽수의 모습으로는 직장 생활 속에서 MZ 세대가 지향하는 모습을 알아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YouTube Shorts'를 통해 MZ 세대의 정보 소비 양상과 최신 유행에 민감한 모습을 살펴봤다.

MZ 세대의 문화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실 세계보다 SNS에 집착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고, 과시를 위해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유용한 정보를 담지 않은 영상을 무료하게 넘기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MZ 세대 본인들도 실증을 겪고 오히려 비꼬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관심을 끌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크고, SNS에 업로드하기 위해 친구를 만나거나 과한 소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비꼬는 내용의 영상이 제작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MZ 세대들이 고쳐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MZ 세대 문화의 장점들은 유지하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세대로 성장할 것이다.

※ 선정된 에세이는 자료집으로 제작 가능합니다.